

남도일보

전남도체육회, 체육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태권도 배운민 등 65명에 3천280만원 지급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17일 대의원총회에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2013년도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의 대표적 장학금 수혜자는 94체육대회에서 승마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권만준(금성고 2년), 94체전 2관왕인 역도종목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완도군청 입단 예정) 등 65명(초 26, 중 19, 고 15, 대 5명)으로 총 3천280만원이다.

이들은 장학금 기탁단체 49

명과 일반단체 추천 16명 중의 일원이며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70만원, 대학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를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13년말 기준 14억603만5천원이 모금됐다.

특히 지난 3년동안 227명에 1억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한 바 있다.

이같은 학생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종합4위를 연속해서 차지한 바 있다.

따라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이 우수선수 발굴에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절감한 전남도체육회는 조성 목표액을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도민, 유관기관, 출향 향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모금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의 체육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비록 개인적으로는 적은 규모일지 모르지만, 전남 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더없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전남매일

전남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장학금 전달

전남도체육회가 체육영재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9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201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체육영재 65명(초26·중19·고15·대5명)에게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3,280만원을 전달했다.

체육인재육성장학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장학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지난해말 기준 14억603만5,000원이 모금됐다.

도 체육회는 지난 3년동안 227명에게 1억1,200만원(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70만원, 대학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을 통해 학생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

안 종합4위를 연속해서 차지한 바 있다. 따라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이 우수선수 발굴에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절감한 도체육회는 조성 목표액을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도민, 유관기관, 출향 향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모금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고광민 기자

무등일보



도체육회,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태권도 배운민 등 65명에 3천280만원 전달

전남도체육회가 꿈나무들에게 체육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도체육회는 17일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갖고 태권도 배운민 등 65명(초·26 중·19 고·15 대·5)에게 3천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선수들에게는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70만원, 대학부 100만원 등 학년별로 각각 지급됐다.

이번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를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기준 14억6백3만5,000원이 모금됐다.

특히 지난 3년동안 227명에 1억1천2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학생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종합4위를 연속해 차지하는 성과도 올렸다.

따라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이 우수선수 발굴에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절감한 전남도체육회는 조성 목표액을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도민과 유관기관, 출향 향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모금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의 체육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면서 "비록 개인적으로는 작은 규모일지 모르지만 전남 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더없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장학금으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욱기자

전남일보



전남도체육회,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7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승마의 권만준(금성고 2년)과 체전 2관왕인 역도의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 등 총 65명(초 26, 중 19, 고15, 대학생 5명)이 총 3280

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은 2008년부터 우수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2013년 말 기준 14억603만5000원이 모금됐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27명에 1억1200만원(초등부 30만원·중등부 50만원·고등부 70만원·대학부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최동환 기자 dhcho@jilbo.com

광남일보

전남도체육회, 체육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태권도 유망주 배운민 등 65명에 3280만원 지급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의 대표적 수혜자는 94체전에서 승마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권만준(금성고 2년)과 94체전 2관왕인 역도종목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완도군청 입단예정) 등이다.

또 제42회 소년체전 해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배운민(목포유달중 3년·전남체고 진학예정)도 당당히 연단에 섰다.

이들은 장학금 기탁단체 49명과 일반단체 추천 16명 중의 일원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70만원,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들이 도체육회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창조(씨름), 배운민(태권도), 이동희(카누), 조영기 부회장, 배용태 부지사, 서인경 선수, 배성완 부회장, 서정복 부회장, 박내영 사무처장.

대학부 100만원씩 이날 총 3280만원이 지급됐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를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지

난해말 기준 14억603만5000원이 모금됐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총 227명에 1억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학생부 육성에 나선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종합 4위를 수성했다. 김경석 기자 pius97@